보도기획

나침반 없는 온라인 강의, 어디로 향해야 하나

구체적인 정책 부재

이근한 기자 dlrmsgks21@khu.ac.kr

우리학교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과 일관적이지 않은 온라인 정책상의 문제로 학생의 불편이 쌓이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2학기 기준 우리학교의 온라인 강의 수는 우리학교와 교비회계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내 6개 주요 사립대학 중 성균관대학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우리학교 전체 강의 3,517개 중 온라인 강의는 35개(1%)였고, 성균관대는 전체 2,587개 강의 중 93개(3%)였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가진 '온라인 교육 활성화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에서 사이버대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정서영 부총장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는 32개 온라인 강의가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다수가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교수와 학생 간의 고질적으로 미비한 상호작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호운(태권도학 2017) 씨는 "일방적으로 동영상만 시청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며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발전해야할 것 같다"고 현행 온라인 강의 방식을 지적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배분이수교과 '인문학과 인문컨텐츠'의 김기국(프랑스어학) 교수는 "수강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다"며 "수업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학생의 집중력 저하가 초래되기 쉽다"고 말했다.

관리자 배정 유무에 따라서 수업 간 학습의 질에 편차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학과 전공기초교과 '경제학원론'은 담당 교수 외에 박사 과정 2명, 석사 과정 4명, 학사 14명으로 이뤄진 '튜터'가 배정돼 있다.

2014년 대학알리미 공시를 기준으로 우리학교와 교비회계 규모가 비슷한 5개 대학의 온라인 강의 수를 조사했다. (출처 : 대학알리미)

> 학교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나 규정 없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의 학습이나 교수의 수업 관리를 돕는다. 해당 강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교수·튜터·학생 연계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강의다.

경제학원론은 이번 학기 1,02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다. 수강생 50명 당 1명의 튜터가 배정된 셈이다. 그러나 강의 마다 튜터-학생의 비율이 제각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76명이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학과 전공선택교과 '외국어습득론'은 튜터가 한 명 뿐이었다. 외국어습득론을 수강하는 A씨는 "튜터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도 "한 명이 76명을 관리하는 것은 버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캠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승현 계장은 "교수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튜터 또한 직접 뽑는다"며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수에게 튜터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판단은 교수의 몫이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자유이수교과 '약과 건강'의 정성현(약학) 교수는 "과거 온라인 강의 수가 적었을 땐 관리자가 배정됐기에 학생관리가 용이했다"면서 "지금은 관리자가 배정되지 않아 수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웅(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씨는 "강의마다 수업에 도움을 주는 관리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사실에 혼란스럽다"며 "일관적이지 않고 복잡한 온라인 강의 정책에 불만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의 '리뉴얼되지 않은 강의자료' 또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동일한 교과임에도 교수님마다 강의 자료의 질이 천차만별이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균등한 수업의 질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김리나(언론정보학 2016) 씨 역시 "리뉴얼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강의 내용 중 등장하는 사례가 친숙하지 않았다"며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되지 않다보니 공감이나 이해가 부족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공통점은 '통일된 온라인 강의 정책의 부재'로 귀결된다. 실제로 현재 우리학교에는 온라인 강의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한상 과장은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규정이나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 없다"며 "연내 담당 부서를 꾸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교내 규정 2개를 찾을 수 있었지만 원론적인 규정뿐이었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장33조는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온라인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라며 온라인 수업을 수업 중 하나로 규정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처무규정' 제2장 47조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온라인 강의 지원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었다. 결국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온라인 강의 촬영 제작과 지원 등의 실무적인 기능을 할 뿐,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학사지원과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임병노(후마니타스칼리지) 전 회장은 "학교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나 규정 없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강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어떤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할지에 대한 기준과 이 기준에 대한 고찰 없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있다"며 "효율을 따지다가 이 효율이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래 장점 살리지 못하는 온라인 강의, 핵심은 '수강인원'

이근한 기자 dlrmsgks21@khu.ac.kr
안나연 기자 na@khu.ac.kr

이번 학기 우리학교에 개설된 32개의 온라인 강의를 조사한 결과 질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임병노(후마니타스칼리지) 전 회장은 "본래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도를 조정할 수 있어 수업 내용 이해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장점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교수자가 확인 가능할 때, 학습자 역시 교수자에게 적극적으로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하며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온라인 강의가 본래의 장점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7학년도 2학기 기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학교 온라인 강의 35개 중 20개가 수강정원 100명을 초과하는 대형강의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에 기인한 학습태만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임병노 전 회장은 "온라인 강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강의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 목적이 결여돼 생기는 것이라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는 "학습자는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교수자는 일방적인 수업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임 전 회장은 "교수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파악을 위해 질문하고 학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면 교육보다 오히려 수강생 수가 현저히 적어야 한다"고 수강인원이 비대해진 현재의 온라인 강의를 비판했다.

그의 설명과 반대로 우리학교의 실정은 대형강의 중심이었다. 지난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27개의 온라인 강의 중 '수강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강의(대형강의)'는 총 16개(200명 이하 11개, 201명 이상 5개)로 전체의 59.25%를 차지했다. 반면 3,936개의 오프라인 강의 중 대형강의는 75개로(200명 이하 73개, 201명 이상 2개)로 전체의 1.90%에 불과했다. 2017학년도 2학기 역시 전체 35개 온라인 강의 중 57.14%인 20개 강의(200명 이하 14개, 201명 이상 6개)가 대형강의였다. 두 학기 연속으로 온라인 강의 내 대형강의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오프라인 강의 전체 3,842개 중 2.31%인 89개(200명 이하 87명, 201명 이상 2명)가 대형강의였다. 이처럼 현재의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대형강의 위주다.

온라인 강의가 대형강의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본래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한 임 학회장은 '교육의 질'을 언급했다. 그는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그건 대학이 아니라 학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우리학교는 이미 2000년대 초 온라인교육센터를 설립하며 온라인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마련했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과 예산이 부족해진데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대체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화된 운영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회장은 "'교육의 민주화, 효율화, 편의성'이라는 온라인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생과 대학 본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다시금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